



제목	Turke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2. 3. 2.
저자	Andrew Finkel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224
ISBN 또는 ISSN	978-0199733040

내용 요약

『터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터키의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종교에 관한 개설서이다. 저자 핀켈은 터키가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가? 터키가 민주적인 개혁을 완성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시키는 안내서를 목표로 하였다. 해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적 배경,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적 민족주의 혁명, 아타튀르크의 유산인 군부의 정치 개입, 이라크에서 터키의 역할, 쿠르드 문제, 경제 정책 등 터키를 알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질문에 답을 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론은 튀르크의 인종, 언어,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2장 역사적 배경은 오스만과 현대 터키와의 연관성, 아타튀르크의 유산, 터키인들의 과거를 보존하려는 의무를 서술하고 있다. 3장 경제는 터키의 경제적 잠재력, 약점, 터키 경제에서 농업의 의미, 이스탄불과 앙카라의 경제적 차이를 담고 있다. 4장 세계에서 터키의 위치, 미국과 터키의 동맹 문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EU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5장은 정치와 군대에 관한 것으로서 터키의 정치 시스템, 정당과 그 이데올로기, 언론의 역할, 군대의 역할, 군사 쿠데타의 의미를 추적하였다. 6장 사회와 종교는 터키의 공공 생활에서 이슬람의 역할, 터키 사회에서 쿠르드족의 의미와 그 해결책, 여성의 지위 문제, 1915년의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문제와 그 해결책을 설명하였다. 저자는 터키 인구의 평균 연령이 29세이기에 경제적 탄력성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재정 적자와 시리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관심을 쏟을 것을 충고하고 있다.